



먼저, 인도와 미얀마에 걸쳐 사는 나가(Naga) 원주민 공동체, 제가 속한 민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동료들과 함께 강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는 깊은 웅덩이에 잠수하던 중, 마른 모래밭을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세 개의 인간 두개골로 만든 화덕 옆에 물의 정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령은 그에게 말린 생선을 선물하며 다시는 강에 잠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남자는 강둑으로 돌아와 동료들과 생선을 나누었지만, 더 많은 생선을 얻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다시 강으로 돌아갔고, 이번에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물고기를 얻으러 다시 돌아간 그 남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 선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마침 제국 권력의 한 도구와 같습니다.

기독교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왔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가는 매우 컷습니다. 문화와 언어, 땅과 가족, 심지어 생명 자체를 잃는 대가였습니다. 개종자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문화와 관습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받으며, 수치심과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국경이 새로 만들어지고 서구적 가치가 강요되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그들의 몸은 연구와 전시의 대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일부 선조들의 유해는 여전히 박물관에 남아 있으며, 우리 민족은 '야만인', '미개한', '지성이 없는' 존재로 낙인찍혔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원주민 공동체는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생존이었을 것입니다. 전해진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종종 말살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원주민들이 복음 속에서 생명력을 발견했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온전함과 이웃과의 공동체적 연결감에 공명했기 때문입니다. 나가족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것은 미국 선교단이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한 것은 바로 나가족 자신이었습니다. 오늘날 나가랜드가 인도에서 기독교 다수 주가 된 것은 선교사들의 공로만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신앙의 주체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상처와 지해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주민이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역설입니다.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과 기독교 선교의 결합은 서로 다른 원주민 집단들을 하나로 모이게 했고, 인도 지배층의 브라만적 가부장제 종교·언어 문화와 구별되는 공동의 정치적·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나가족은 무기를 들고 우리 땅을 점령한 인도 국가에 저항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오늘날에도 '군대 특별권한법(Armed Forces Special Powers Act)' 아래 계속되고 있으며, 이 법은 군사 개입을 정상화하고 수많은 인권 침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인도 국가가 강제로 우리를 동화시키려 했을 때, 우리의 저항은 분리주의이자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혔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든 것은 존엄성과 생존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같은 경험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오늘날 팔레스타인 형제자매들이 겪는 투쟁에서 억압받는 이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현상에서도 동일한 식민주의적 논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것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원주민 형제자매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원주민의 생명을 희생하며 이윤을 추구합니다. 교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저지른 학살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며, 진정한 화해와 해결을 추구하는 원주민의 목소리와 움직임을 억압합니다. 교회들은 제국주의 칙령으로 빼앗긴 원주민의 땅을 소유하고, 그 땅과 역사로부터 계속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국에 도전하는 일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
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취약한 이들과의 진정한 연대를 보여주며, 생명의 충만함과 창조
물이 다시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저, 나가 원주민 여성으로서 복음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 역사 속 상처를 몸에 지닌 채 이
모순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는 WCRC와 그 회원들에게 회복적 정의—회개, 배상, 올바른 관계—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자결권, 토지 반환, 치유를 추구하는 원주민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
십시오.

탈식민 신학

기독교는 치유와 해악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또한 백인 중심의 기독교 우월주의와 여전
히 우리의 사고와 상상력을 형성하는 신학적 이상을 남겼습니다. 많은 원주민 교회들은 식
민지적 트라우마를 견디는 과정에서 형성된 복음주의 신학에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한
때 우리에게 힘이 되었던 그 신학조차, 이제 생명과 다양성을 외면할 때는 상처를 줄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식민지 접촉 이전 원주민 공동체는 다양한 성별과 성적 지향을 삶의 일부로 받
아들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과 의미, 존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구 기독
교적 가치관은 마녀사냥과 다름없이 이를 억압했습니다. “남성과 여성”만이 하나님의 올바
른 형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며, 창조계에 나타나는 하
나님의 형상의 다양하고 풍요로운 방식을 지우고 말았습니다. 퀴어와 원주민의 삶은 교회
에 구원이 충만함에 관한 것임을, 하나님의 형상은 동일성 속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온전
히 드러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개인의 거룩함과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춘 경건주의(Pietism)는 원주민 기독교의 상
당 부분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구원 이해는 식민
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를 창조 세계와 공동체, 그리고 정의로부터 고립시킵
니다.

우리는 신앙의 충만함을 되찾기 위해 이러한 식민주의적 신앙 형태를 버려야 합니다. 이는
원주민의 지식 체계를 존중하고, 하나님과 이 땅과 깊은 교감을 나누며 살아간 선조들의 지
혜에 다시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주민 관점에서 본 선교

“미시오 데이(Missio Dei)는 지배나 축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넘쳐흐르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를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탐욕과 권력, 즉 세계적 불평등을
유지하는 세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자
들의 타자를 뒤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착취를 정당화하는
신학 또한 바로잡아야 합니다.”



원주민의 관점에서 선교는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즉, 신음하는 땅과 권력의 가장자리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을 어딘가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와 의식,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 원주민으로부터 배울 때, 하나님이 교회 벽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경계선 한가운데서 늘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카우틀레이 희망신학대학원에서 목격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의 방식 속에서, 땅을 돌보는 모든 행위, 원주민 축제를 기념하는 모든 행사, 조상의 기억을 담은 모든 노래는 지배 체제에 저항하며,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명을 풍요롭게 합니다. 원주민의 지혜는 선교에 생명을 불어넣고, 선교가 교제이며 모든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원주민 이야기들은 지혜를 담고 있으며, 우리가 창조물의 일부이지 주인이 아님을 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서 나눈 한 남자와 물의 정령 이야기는 교회에 주는 경고입니다. 지혜를 무시하고 필요 이상을 취하려는 행동은 반드시 해를 초래합니다. 선교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강에 다시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한 마리의 물고기, 한 가지 선물에 감사하며 살고, 땅과 물, 영, 그리고 서로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탐욕을 깨뜨려 생명을 보존하고, 관계를 강화하며, 무시당하는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러 위험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신학을 원한다면, 우리는 탐욕과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야 합니다. 원주민의 목소리를 지지하고, 신학을 탈식민화하며, 땅과 생명과 영혼을 존중하는 연대 속에서 함께 걸어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며, 가장자리에서, 숲과 강에서, 우리의 조상을 통하여, 귀어의 몸을 통하여, 세상이 잊은 땅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을 지혜를 갖게 하소서. 역사가 침묵시키려 했던 이들에게 변화를 받을 용기를 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교제가 상처받은 이들이 마침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소서. 정의가 존중받는 곳이 되게 하시고, 온 피조물이 창조주를 찬양하며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